



환상적인 휴가추억 만들기 - 대명리조트 제주

글 **이미숙** KFA 교육홍보팀 과장



강필만 시설팀장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 여유롭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 졌다. 그에 따라 국내 리조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이 늘면서 차별화 된 컨셉을 내세운 리조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제주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바다가 한눈에 금방이라도 바다로 뛰어들어 항해를 시작할 듯한 호화유람선을 연상시키는 대명리조트 제주를 방문하여 강필만 시설팀장을 만나보았다.

(주)대명레저산업

- 소비자 신뢰도 및 고객만족도 최상

미래형 레저공간 창출과 국민행복 증대, 가족가치 존중이라는 기업모토로 1987년 설악리조트를 시작으로 설립된 (주)대명레저산업(대표이사 조현철)은 한국능률협회 선정 브랜드파워 콘도부문 6년 연속 1위, 소비자포럼 올해의 브랜드대상 8년 수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5년 연속 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1월에는 리조트업계 최초로 대명리조트의 전국 9개 사업장 모두 KS서비스인증을 취득하였다. KS서비스

인증은 대명리조트의 △업무 표준화 △서비스 점검 및 평가 △시설, 환경, 안전관리 매뉴얼 구성 및 품질 향상 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대명리조트 전 사업장 어디에서나 고객에게 표준화된 서비스 및 시설품질을 제공하게 된다.

대명리조트 제주

- 높은 객실 운용률로 신규 콘도 오픈

대명리조트 제주는 2004년 개관한 (구)동양썬라이즈를 (주)대명레저산업에서 인수하여 2007년 9월 개관된 곳으로, 연면적 29,171m²에 24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고운 백사장과 얇은 바다 속 패사층이 만들어내는 푸른빛 바다가 아름답고, 현무암과 아치형 다리, 바다로 이어지는 산책 데크까지 갖추어져 있어 제주의 푸른 바다를 관망하기에도 그만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명리조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더해져 대명리조트 제주의 연평균 객실 운용률은 95%에나 달한다고 한다. 이에 올해 3월 8일에는 함덕해수욕장에 156실 규모의 콘도를 신규 오픈함에 따라 총 398실의 객실을 보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명리조트 제주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높은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등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해놓고 고객 대피, 유도, 구출방법 등 체계적인 고객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130여명의 직원들에게 연 2~3회 단체교육 및 수시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 동부지역 최대의 리조트인 만큼 소방서와 협조체계도 확고하게 구축하고 종합훈련도 매년 상·하반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형건물의 안전관리는 용역업체가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명리조트 제주는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팀 직원 14명 모두 대명리조트 소속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팀 직원들의 책임감이 투철하고 자부심이 높다. 또한 업무에 임할 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고 늘 숙선수범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직원들끼리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안전을 대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확고하니 어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랴...

이렇듯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데에는 강필만 시설팀장의 리더십도 한 몫 단단히 한다. 20년이 넘는 안전관리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원들 안전교육도 직접 실시하고 안전과 관련된 투자도 적극 유도함으로써 고객안전에 위한 시설 개선에도 늘 적극적이다. 강필만 시설팀장 덕에 직원들도 보람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지중해 휴양지에 온 것 같은 환상적인 휴가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대명리조트 제주로 떠나보자.

